

성과 사랑에 대한 통일교의 이해

이재일* · 문선애

선문대학교

〈요 약〉

이 논문은 성과 사랑에 대한 통일교의 이해를 다룬 것이다. 통일교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온전한 사랑을 구현하여야 했으나 거짓 사랑으로 타락하였다. 그러므로 인간은 참사랑을 실천하여 본연의 모습으로 복귀하여야 한다. 참사랑은 순결한 사랑을 기반으로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자유가 허용되고 다양한 문화가 뒤섞이면서 가치관이 혼란되어 있다. 성의 영역은 대표적으로 윤리적 혼란을 겪는 부문이다. 현대의 남편과 아내는 부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바란다. 그런데 부부 중심한 가족구조는 가족구성원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가까운 친인척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어 친밀감 형성에 장애가 된다. 이 때문에 현대인은 성과 사랑에 더욱 집착하려 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인은 다양한 형태의 성을 이루어가면서 친밀감과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며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한다. 통일교는 성과 사랑을 하나님의 창조목적과 연결하여 이해한다. 그리고 3대축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 책임의 중심에 순결한 성이 위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성교육은 참사랑의 가치관 교육이어야 한다고 본다.

핵심 주제어: 성, 사랑, 가치관, 친밀감, 순결

I. 서 론

사람은 성적 존재로 태어나 살아간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모두 성과 연관되어 살아간다. 삶의 주요 영역에서 남성 또는 여자라는 성별을 감안하면서 행동한다. 대부분의 생명체에게서 성은 종족을 유지하는 에너지로 작동한다. 성은 사람에게 엄청난 에너지

* 이재일(교신저자)

를 주는 근원이다. 성은 후손을 낳고 양육하는 창조적 힘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개인과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파괴적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현대인은 “성 건강, 성 권리, 성 만족, 이성애에 대한 존중, 인간평등, 최상의 인간관계, 행복한 삶”¹⁾을 위하여, 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종교계는 성을 “인간의 자아와 우주 사이의 단절을 치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성은 도취의 한 형태로 기능한다. 성적 황홀감은 “배타적인 자아에 관한 느낌을 없애고 영적인 결합, 또는 정신과 신성의 결합”을 위해 사용되었고, “사람의 몸에 흐르는 생식 에너지의 흐름과 우주에 흐르는 창조적 에너지의 흐름을 연결” 하는 수단으로도 이용된다.²⁾ 한편, 종교계에서 성은 금기의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 하늘에 기원을 드리거나 종교의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욕이 필수인 경우가 많고, 사제들에게는 금욕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로 볼 때, 성에 대한 종교의 관점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한국사회에는 성차별, 성폭력, 동성애, 트랜스젠더, 성매매, 성교육 등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고, 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성과 관련된 문제를 종교와 종교교육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실마리를 찾아가고자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하였다.³⁾ 학회는 발표자들에게 원고를 의뢰하면서 발표자들이 참고할 사항을 몇 가지 안내하여 주었다.

1. 성과 관련한 개별 종교 또는 종교일반의 연구 성과, 선행연구는 어떠한가?
2. ...개별종교에서 성에 대한 교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3. 개별 종교에서 성에 대한 인지, 태도, 문화는 어떠한가?
4. 개별 종교에서 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어떤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어떠한가?
5. 종교에서 성과 관련한 역할, 책무성은 무엇인가?
6. 종교에서 성과 관련된 과제와 전망은 어떠한가?
7. 종교에서 성과 관련된 종교교육의 과제, 전망은 어떠한가?

필자는 학회가 제안한 사항을 근거로 하되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이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성과 사랑에 대한 통일교의 교리적 근거와 관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에 대한 통일교적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이는 제16차 세계성학회(World Congress of Sexology)와 대한성학회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임. 김원회, 『대한성학회 발족 건의문』, <http://www.sexology.or.kr/about/history.php>

2) Clifford Bishop, *Sex and Spirit*, 김선중·강영민 역, 『성과 영혼』(서울: 창해, 2004), 6-7쪽.

3) <http://www.kasre.or.kr/index.php>

II. 통일교의 성과 사랑

1. 창조본연의 성과 사랑

통일교는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모든 존재의 구조를 이성성상으로 파악한다. 이성성상이란 동일한 존재의 상대적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과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이 있다.⁴⁾ 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광물의 영역에도 해당한다. 모든 존재는 이성성상의 상호작용으로 존재하고 번식하고 활동하며 작용한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교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마음과 몸으로 구성된 존재이면서 남성 또는 여성으로 구분되는 존재라고 본다. 그리고 성이란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이 피조물에 전개되어 나타나 것이라고 본다. 남성이나 여성은 하나님의 양성 또는 음성을 주로 닮아 태어난 존재이다. 또한 인간의 성적 특성이 집중되어 있는 생식기관은 사랑과 생명 그리고 혈통과 양심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⁵⁾ 사랑이란 하나님을 중심하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는 정적인 힘으로서 창조목적에 이루기 위한 행위이다.⁶⁾ 이러한 사랑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은 개체적·가정적·주관적 존재로 성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개체적·가정적·주관적 사위기대로 이해된다. 이 중에서 가정적 사위기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지향하는 남성과 여성이 부부로서 이루는 것이다. 이 가정적 사위기대에서 인간은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에서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자매의 4대 사랑으로 나타난다. 사랑의 근원은 심정이다. 그러므로 가정을 중심으로 4대 사랑과 4대 심정이 경험되며 습득되는 것이다.⁷⁾

인간이 성장함에 따라 그가 경험하는 사랑도 성숙한 사랑이 된다. 사랑에는 내포성이 있다. 즉, 자녀의 사랑은 형제자매의 사랑에 포함되고, 형제자매의 사랑은 부부의 사랑에 포함된다. 부모의 사랑은 이 모든 사랑을 내포한다. 이러한 논리를 심정에도 적용하면 부모의 심정이 다른 심정을 내포한다.⁸⁾ 하지만 사랑 중에서 대표적인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다.

부부간의 사랑은 가정에 있어서 남자 편과 여자 편의 사랑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양과 음의 사랑을 대표하고, 인류의 남성과 여성의 사랑을 대표하고, 전 우주의 반인 양적 측면과 음적 측면의 사랑을 각각 대표하기 때문에 부부애가 가장 대표적인 사랑이 되는 것...

4)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서울: 성화출판사, 1994), 22-23쪽.

5)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참가정과 세계평화』(서울: 성화사, 2000), 147쪽.

6) 위의 책, 53-54쪽.

7) 위의 책, 34-35, 54쪽; 통일사상연구원, 『통일사상요강』(서울: 성화출판사, 1993), 390-391, 798-799쪽.

8) 위의 책, 798, 801-802쪽.

부부의 사랑은 단순한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적 사랑과 피조세계의 사랑을 총합한 총합에...

부부의 결합의 자리는 천주를 대표한 자리 즉, 천주의 중심의 자리인 동시에 창조이상을 완성한 자리요, 제2창조주의 자리인 것...⁹⁾

남편은 가정에서 남성 전체를 대표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여성 전체를 대표한다. 또한 남편은 인류의 전체 남성과 우주의 양성을 대표하고 아내는 인류의 전체 여성과 음성을 대표한다. 나아가 남편과 아내는 각각 하나님의 양성과 음성을 대표한다. 양성에게는 음성이 필요하고 음성에게는 양성이 필요하여 양성과 음성이 만나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배우자는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필요한 존재로서 조화를 이루어 사랑으로 합일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부부의 사랑이란 인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남녀가 부부가 되어 우주적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결혼 이전에 자녀로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양육되며 형제자매 사이에 서로 건강한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한 바탕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부모로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운데 온전한 부부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가정적 사위기대를 중심으로 4대 사랑을 체험하며 성장해야 창조목적의 완성을 할 수 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닮아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한다.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창조본연의 이상을 실현하는 존재로 성장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상가정을 기반으로 4대 사랑을 경험하며 성장해야 한다.

2. 타락과 복귀로 본 성과 사랑

통일교는 『성경』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는 타락설화를 근거로 인류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사랑의 오용이라고 본다. 인류의 시조가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완성을 이루려 하였으나 거짓 사랑으로 타락하여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 28) 하신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사랑으로 인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목적의 완성을 두고 볼 때 사랑은 가장 귀하고 거룩한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천시하여 온 것은 그것이 바로 타락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해와는 하나님을 중심한 선의 사랑으로 선과를 따먹고 선의 피와 살을 받아 선의 혈통을 번식해야 할 것이었다. 그런데 사탄을 중심한 악의 사랑으로 악과를 따먹고 악의 혈통을 번식하여 죄악

9) 위의 책, 804쪽.

의 사회를 이루었던 것이다.¹⁰⁾

인간의 시조가 잘못된 사랑으로 타락하여 죄인이 되었고 이 세계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이러한 세상에 태어나 죄악을 저지르며 살게 되었다. 또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명이나 역사도 불륜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의 주요 종교들은 간음을 큰 죄로 규정하여 왔고 금욕생활을 강조하여 왔다.

인류가 거짓 사랑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벗어났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참된 사랑을 해야 한다. 음란으로 타락한 인류는 순결로 복귀되어야 한다. 거짓 사랑으로 죄악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참 사랑으로 선의 역사를 창조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거짓된 사랑, 곧 음란의 문제이다.

인류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연은 파괴되었으며 공해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오늘의 인류가 직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음란 문제이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이 문제가 개인의 윤리적 감각을 마비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

통일교는 이 과제를 해결하는 길은 ‘순결’과 ‘절대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본다. 흔히 순결이라고 하면 과거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던 남녀차별의 이데올로기로 생각하기 쉽다. 국어사전에서 순결이라는 낱말은 “잡된 것이 없이 순수하고 깨끗함” 또는 “이성과의 성적인 관계가 없이 마음과 몸이 깨끗함”을 의미한다.

통일교에서 주장하는 순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혼과 기혼을 막론하고 남녀 모두 지켜야 할 성적 정절을 뜻한다. 순결은 남녀 모두에게 그리고 결혼 전이나 후에나 항상 해당되는 것이고 성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 나아가 삶의 태도에서 순수성을 지키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 순결을 “참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토대가 되는 기초 덕목”으로 이해한다. 통일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에서 “참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육체적 쾌락의 차원을 넘어서 본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존엄성과 책임성이 따라야함을 강조한다.¹¹⁾

순결과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으로 절대성이 있다. 절대성(absolute sex)이란 free sex의 반대말이다.¹²⁾ free sex가 성 행위에서 어떠한 기준이나 제한도 없는 것이라면 절대성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중심한 성 행위를 의미한다.¹³⁾ 절대성은 곧, 절대적으로 순결한 성을 의미한다. 남녀의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가능하고 또한 상대를 위하는 경우에 가

10)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앞의 책, 79-82쪽.

11) 문상희, 『통일사상으로 본 순결학의 이념과 교육내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통일사상연구논총』10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1998), 189쪽.

12)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앞의 책, 146쪽.

13) 오택용, 『참아버님의 말씀으로 본 절대성의 의미』, 『말씀과 신학』 7(아산: 선문대학교 신학부, 2001), 99쪽.

능하다. 그러므로 절대성이란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불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행위를 말한다.¹⁴⁾

순결과 절대성은 통일교 내에서 통상적으로 미혼의 남녀가 지켜야 할 성적 금욕과 결혼 이후의 부부가 지켜야 할 배우자에 대한 정절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¹⁵⁾ 굳이 순결과 절대성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드러내본다면, 순결은 미혼 남녀의 깨끗하고 순수한 성적 상태에 초점이 있고, 절대성은 남편과 아내가 절대자 하나님의 참사랑을 이루고자 지켜야 하는 성적 태도에 강조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축복결혼으로 본 성과 사랑

인간은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 가정에서 양육된다. 인간 시조가 타락하여 인류가 거짓과 죄악의 세계를 이루고 살게 되었을지라도 가정에는 창조본연의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랑의 요소가 많이 남아 있다. 사람은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교는 가정을 천국완성의 기본단위라고 본다. 천국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고 가정을 확대한 것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정은 사랑을 중심한 천국인의 훈련장이요, 사랑과 심정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이다.¹⁶⁾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낳아 보호하고 양육하며 독립된 인격체로 교육해가는 터전이 되어 왔다. 그러므로 가정을 사랑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득해야 하나님의 창조목적에 완전한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순결과 절대성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체득하고 실현하여 온전한 인간으로 나아가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순결한 남녀가 개인적으로 성숙하여 부부가 되고 서로 정절을 지키며 위하여 사는 것이 참사랑을 실현하고 참가정을 실현하는 길이다.¹⁷⁾ 나아가 이러한 부부는 혈연적 인연을 넘어 사회와 국가 및 세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참사랑을 실현하는 길이고 참가정을 확장하는 길이 된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교는 ‘참가정운동’을 추진해왔다. ‘참가정운동’이란 창조본연의 가정으로서 위상과 가치를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인류가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에서 참다운 자녀·형제자매·부부·부모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 아끼고 위하는 생활을 하며 참다운 인간으로 성숙하자는 운동이다.¹⁸⁾ 이는 참가정을 실천하려는 운동이기에 ‘참가정실천운동’

14)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앞의 책, 146-148쪽.

15) Sang Huy, Moon, *Pure Love Studies: Origins, Preliminary Outcomes, and Future Directions*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dgeport, 2004), p.12.

16)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천성경』(서울: 성화출판사, 2005), 440, 442쪽.

17) Sang Huy, Moon, op. cit., p.18.

18)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참가정과 종족공동체운동』(서울: 세계평화통일자정연합, 2002), 22쪽.

이라고도 한다. 인간 문제의 근원에는 순결과 참사랑으로부터 떨어진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있다. 건강한 가정 또는 이상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이야말로 오늘의 인류에게 매우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통일교의 ‘참가정운동’의 중심에는 ‘축복결혼식’이 있다. 통일교가 추진해온 ‘축복결혼식’이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혼식이다. 그것은 선남선녀가 평생을 순결하게 살며 창조본연의 이상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어갈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예식이다.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부부는 타락한 아담과 해와를 대신해서 선의 조상으로 출발하게 된다. 참가정을 찾아가는 길 그리고 참가정을 이루어가는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Ⅲ. 현대사회의 성과 사랑, 그리고 통일교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인류의 문명은 사탄이 지배하게 되었고, 인간의 삶은 거짓된 사랑과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류가 이루어가는 문명과 역사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통일교는 현대사회에서는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며 성이 문란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1. 현대사회의 가치관 혼란

현대사회는 대체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삼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체제를 지향한다. 현대인은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고 자유롭게 살고자 한다.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 가급적 이를 허용하는 사회이다.

개인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 및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란 인간의 욕망과 삶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가치와 문화가 함께 존립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의 삶에서 바람직한 것을 본보기로 제시하여 준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하는 사회에서는 바람직한 가치판단과 가치추구가 어렵게 된다. 가치란 인간 행위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시하는 개념이다. 가치관 또는 가치체계란 “문화의 통합 원리로서의 중심적 가치를 핵으로 하여 이루어진 제반 가치의 총체”이다.¹⁹⁾ 본질적으로 가치지향적 존재인 인간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선택한다. 그런데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뒤섞이는 현대사회에서는 일관된 가치관을 유지하며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어간다.

19) 신수진 · 최준식,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서울: 집문당, 2002), 25쪽.

한국사회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의 근대화를 거치면서 큰 폭의 문화적 변동을 겪어왔다. 그 와중에 한국문화에서 바람직한 삶의 양식이 되는 본보기가 사라지고 이중적 가치체계가 형성되었다. 전통과 현대, 신과 구, 동과 서, 한과 양 등으로 대비되는 서로 다른 규범이나 가치의 체계가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중적 가치체계란 동일한 상황에서 두 개의 가치체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중가치체계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치판단에 혼란을 일으켜 원칙 없이 기회주의적으로 살게 만들고, 강자에게 편리하고 약자에게 불리하여 강자 중심의 환경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다.²⁰⁾ 더구나 현대사회는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사회이다. 정신적 가치가 물질적 가치에 매몰된 사회에서 인간은 비정상적인 삶으로 빠져들기 쉽다.

근대가 시작된 이래 인류는 한편으로 이성의 힘을 찬양하여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를 주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본능의 해방을 기치로 내걸고 욕망의 충족을 지향하였다. 이성의 힘을 찬양하고 본능의 해방을 기치로 내걸었던 현대의 문화는 드디어 이성으로부터 욕망을 해방시켰다. 여기에 자본주의 사회체제는 자본과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끝없이 부풀려왔다.²¹⁾ 그 결과 현대인은 부풀려진 욕망에 예속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 욕망의 분출과 가치관의 혼란은 성의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는 현대사회, 그중에서도 급속한 근대화와 문화적 변동을 겪으며 이중적 가치체계를 형성한 한국사회에는 왜곡된 성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문화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즉, 공공적 성윤리와 성관행의 이중성, 남성과 여성에 대한 기준의 이원성, 자기편 여자와 낯선 여자에 대한 태도의 이원성, 겉과 속 그리고 말과 행동의 위선성 등의 측면에서 이중적이다.²²⁾ 한국사회의 성문화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문화, 저급한 성문화, 상품화된 성문화라고 할 수 있다.²³⁾

현대 한국문화의 바탕에는 모든 것을 상품화하고 인간을 도구화하는 자본주의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리고 정신-가치 중심의 사고방식보다 물질-쾌락 중심의 사고방식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 왜곡된 성의식, 성행동, 성문화가 존재한다.

20)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I(서울: 느티나무, 1996), 270-274쪽.

21) 최봉영, 『주체와 욕망』(서울: 세계절출판사, 2000), 11-13쪽.

22) 황경식, 『성윤리·성철학·성교육』, 『철학과 현실』 22(서울: 철학문화연구소, 1994), 77쪽.

23) 최영애, 『우리사회 성문화와 성교육의 방향: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3-10쪽; 권수현,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가부장제: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16-25쪽.

2. 현대인의 성과 사랑

현대의 개인주의 문화는 부부 중심의 가족제도에 근거하여 성을 중요하게 다룬다. 이에 편승하여 대중문화는 성적 매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인간의 욕망은 사회체제 내에서 실현될 수도 있고 사회체제를 벗어나 실현될 수도 있다. 성욕의 경우, 특히 개인주의 문화에서, 인간은 법이 금하지 않는 것이라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성욕을 다스리는 것은 점점 어렵게 된다.²⁴⁾ 그 결과 현대에는 성의 규범과 가치관이 약화되고 사랑의 질서가 파괴되어, 성적 행동이 문란해지고 있다.

오늘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중시하는 개인주의 사회이다. 결혼에서도 당사자들의 생각과 결정이 중요하게 되었다. 과거의 결혼은 부모와 가문의 뜻을 반영하는 친족의 행사였다. 하지만 오늘의 결혼은 당사자들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다. 현대인의 결혼은 남녀의 정서적 결합에 의미를 둔다.

안토니 기든스(Anthony Giddens)는 현대인의 성을 “신체와 자기정체성 그리고 사회규범이 일차적으로 연결된 지점”으로 본다.²⁵⁾ 그는 현대인의 성을 자아형성 과정으로 이해하려고 하였다.

기든스는 임신과 출산 및 친족관계로부터 분리되어 개인 상호간의 정서적 친밀성에 초점을 두며 다양한 형태를 띠어가는 현대인의 성을 조형적(plastic) 섹슈얼리티라고 하였다.²⁶⁾ 이는 성을 중시한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순수한 관계에 기반을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의 순수한 관계란 친밀한 감정적 유대관계 그 자체를 중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에서 서로 사랑의 유대를 공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협상해가는 합류적(confluent) 사랑을 이루게 된다. 합류적 사랑이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고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사랑이다.²⁷⁾ 현대인은 자신의 마음과 몸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성과 사랑을 통해 자기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울리히 벡과 엘리자베스 벡(Ulich Beck und Elizabeth Beck-Gernsheim) 부부는 현대인의 사랑과 결혼이 지니는 의미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들은 현대인의 성과 사랑은 자아를 찾기 위한 실존적 노력이라고 보았다.

사랑은 점점 황량해져 가는데, 사람들은 사랑이 깨졌을 때조차도 사랑을 포기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커다란 희망을 사랑에 걸고 있다. 사랑이야말로 온갖 개인적 배신이 난무하는 불쾌한 현실에 맞설 수 있는 버팀목이라고 믿기 때문이다.²⁸⁾

24) 최봉영, 『주체와 욕망』, 191-192, 198-199쪽.

25) Anthony Giddens,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on Modern Societies*, 황정미·배은경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서울: 새물결, 1996), 116쪽.

26) 위의 책, 64-66쪽.

27) 위의 책, 116-118쪽.

이들에 의하면 오늘의 사회는 핵가족적 삶의 방식과 노동시장의 변화 등의 사회적 구조 변동을 거쳤다. 이에 따라 현대인은 성과 사랑에서 희망을 찾고 있다. 또한 현대인은 외로움을 벗어나고 친밀해지고자 한다. 여기에 독립적이고 자율적이고 싶어 사랑을 찾는다. 현대인은 황량한 산업사회의 구조로부터 벗어나 성과 사랑에서 자아를 찾고 삶의 의미를 맛보고자 한다. 현대인은 사랑을 통해 위안을 찾는다.

백 부부는 이에 관해 사랑과 종교를 대비하면서 설명한다. 그들에 따르면, 사랑과 종교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한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이고, 너와 내가 만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후원하려는 갈망이다. 사랑은 현대생활에서 나타나는 의심과 불안에 대항할 신뢰에 대한 갈구이다. 사랑은 성적 충동과 지속성 및 개인의 깊은 소망으로부터 자라나는 유토피아이다. 현대인은 이러한 사적인 성소에서 위안을 구한다. 그래서 사랑은 사적 우주이고 종교는 신과 맺어져 있는 것이며, 연인들은 스스로 목사이며 그들 자신이 성경이라고 여긴다는 것이다.²⁹⁾

현대인은 남녀의 성과 사랑에서 정서적 친밀성을 형성하려 하지만 이것조차도 실현하기 힘들어한다. 현대인은, 성과 사랑의 윤리가 약화된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섹스는 많지만 소통은 없고, 소통을 하고 싶지만 소통이 두려워 욕망에만 매달리는” 존재이다. “섹스를 통해 소통을 하고 싶어 하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그것 또한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어서 “섹스는 넘치는데 사랑은 없”이 살아간다.³⁰⁾

현대인의 성과 사랑에는 상호 신뢰가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에도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이 솔직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며 타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성과 사랑에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책임을 지는 자세가 더욱 요구된다.

3. 성과 사랑에 대한 통일교의 진단

전통적으로 종교는 인생과 우주의 근본이 어떠한 것인지 밝혀주는 최상의 가르침이었다. 또한 종교는 바람직한 삶의 본보기를 구성하는 바탕이었다. 그런데 근대에는 사상과 과학 및 세속사회가 발달하였다. 오늘날에는 종교와 세속사회의 가치가 공존하며 협동하기도 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그럴지라도 종교는 여전히 현상의 혼란을 넘어서 본질의 세계를 보여주고 나날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초월의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통일교는 인간의 지상생활이란 영계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28) Ulich Beck und Elizabeth Beck-Gernsheim,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서울: 새물결, 1999), 24-25쪽.

29) 위의 책, 300-302, 308-310쪽.

30) 〈‘성’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한겨레》, 2013년 5월 8일자 제13면.

인간은 지상에서 몸을 터전으로 자신을 수련하여 영혼을 성숙시켜가는 성장과정을 거쳐야 한다. 인간의 지상생활은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사랑을 체득하며 영성을 키워가는 과정이다. 육신과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 영혼을 완성해가는 과정은 마치 열매가 나무에 달려 있는 동안에 성숙하는 것과 같다. 인간의 지상생활이란 결국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어린 아이로 태어나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으로 성장해간다. 통일교는 인간은 여느 생명체와 달리 스스로 자신을 성장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는 존재라고 본다.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아가려면 인간 스스로 자신을 창조함으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 자기 창조의 책임이란 곧 개체완성, 가정완성, 주관성 완성으로 구성된 3대축복을 실현하는 것이다. 3대축복의 실현이란 인간이 하나님 · 인간 · 만물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타락한 첫 조상을 둔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의 뜻인 창조목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창조목적은 인간에게는 존재목적이다. 원죄를 지닌 인간으로서 삶의 가치와 존재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인간의 삶을 현대인의 성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자.

첫째, 인간은 개인적 삶의 가치와 목적을 상실하고 살아간다.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이처럼 자신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 근원을 상실한 인간은 삶의 본질과 목표와 방향도 상실하였다. 마음과 몸 또는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된 인간이 사랑으로 성장하는 마음과 영혼은 경시하고 육신과 물질적 생존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현대인은 경제적 조건에 지배를 받고 있다. 오늘의 사회를 자본주의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가 영혼과 인격의 가치를 멀리하고 육신과 물질을 위주로 한 사회임을 입증하는 말이다.

둘째, 인간은 사회적 삶의 기초단위인 가정과 결혼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살아간다. 인간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가정에서 돌봄을 받으며 가족과의 일차적 관계를 통해 사회생활의 기초적 소양을 갖추어간다. 즉, 가족관계에서 습득하는 정서적 경험은 인간관계와 사회적 질서의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또한 어린 시절의 가정생활을 통한 사랑의 경험은 평생에 걸친 인격성장의 터전이 된다. 물론 가정의 역사적 한계도 있다. 하나의 대표적 예로, 가부장적 가정이 여성 억압의 기제로 작용해왔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현대사회가 가정을 대신하여 가정의 여러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렇더라도 가정은 성과 애정, 자녀출산과 양육, 생산과 소비, 교육과 사회화, 보호와 휴식 및 오락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다.³¹⁾ 그러므로 가정과 결혼의 가치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부부를 중심한 핵가족구조는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녀 · 형제자매 · 부부 ·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터전이 되지 못한다. 이 뿐만

31) 김주수 · 이희배, 『가족관계학』(서울: 학연사, 1986), 43쪽.

아니라 현대의 핵가족은 가까운 친인척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 결국 현대인은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충분히 형성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 대신에 현대인은 친족구조 외에도 동호회와 같은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려고 한다. 또한 남녀의 성과 사랑에서 친밀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한다.

셋째, 현대인은 성적 충동성 때문에 남녀 사이에 친밀해지는 과정을 생략하고 쉽게 성관계로 나아가기도 한다. 인간의 욕망 중에서 성욕은 충동성이 매우 강한 것이다. 강한 성충동의 경우 의지로 조절하기 어려우므로 더욱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남녀가 만나는 과정에서 충동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도 유의해야 한다.³²⁾ 인류는 강력한 성적 충동을 경계하여 이를 금기로 규정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활용했다. 그리고 성욕에 대한 정상적 충족은 사회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가르쳐왔다.³³⁾

넷째, 현대인의 성적 욕망은 대중매체에 의해 자극되고 부풀려진다. 현대사회에서 성 정체성은 대중매체에 의해 매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TV와 컴퓨터, 영화 등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에 의해 성 정체성이 형성된다.³⁴⁾ 그러므로 부풀려진 욕망과 결탁하는 대중문화와 대중매체를 감시하고 경계하는 삶이 필요하다. 현대인은 전문화된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에 치중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욕망을 부풀리는 대중매체를 감시하고 그리고 부풀려진 욕망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지혜를 습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통일교는 인간의 한 평생이란 먼저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배워 실천하고 나아가 이를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살아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가정은 건강한 성과 사랑을 배우는 터전이다. 통일교는 부모의 사랑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이라고 본다. 가정에서 창조본연의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여 사회로 확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수정 같은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삶이다. 순결한 삶이란 통일교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4. 성과 사랑에 대한 통일교의 처방: 순결교육

현대사회의 성과 사랑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여러 문제에 대한 통일교의 해결책은 가치관 정립, 건강한 가정 회복, 순결교육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순결교육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자. 통일교가 제시하는 순결교육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³⁵⁾

첫째, 순결교육은 순결한 성과 사랑에 대한 가치관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다. 현재의 주

32) 최봉영, 『주체와 욕망』, 110-111쪽.

33) 위의 책, 187쪽.

34) 현택수, 『현대인의 사랑과 성』(서울: 동문선, 2004), 74쪽.

35) 문상희, 위의 글; 문상희, 『학교 성교육에서 순결가치관의 제안』, 『종교교육학연구』 3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류적 성교육은 생물학적인 내용을 위주로 하는 가치중립적 성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교육의 담당자들은 보수주의적 성윤리나 자유주의적 성윤리의 관점을 벗어나 생물학적 사실에 근거를 두고 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하지만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측면을 넘어 인격적 측면이 관련된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참된 사랑에 근거하여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자기의 행위에 책임을 지는 인격자로 성장하고 행동하도록 안내하는 가치관을 중시하는 교육이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순결교육은 이러한 가치관 교육을 지향한다 그래서 순결교육을 순결가치관 교육이라고도 말하는 것이다.

둘째, 순결교육은 인간의 존재목적에 근거한 가치를 실현하려는 교육이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고 이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목적적 존재이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은 수단으로 취급되기 쉽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이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순결교육은 성과 사랑의 측면에서 종교적으로 또는 본질직관으로 인간의 가치와 삶의 의미를 파악하고 학습자로 하여금 이를 실현하도록 돕는 교육을 지향한다.

셋째, 순결교육은 가정과 결혼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회복하려는 교육이다. 순결한 성과 사랑은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경험하고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남녀의 성관계는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순결교육은 가정과 결혼의 장점을 존중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현대인에게 건강한 가정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순결교육은 오늘의 성교육에 대한 대안적 성교육 모형을 지향한다. 순결교육론자들은 오늘의 성교육이 지나치게 성지식을 제공하되 건강한 성윤리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성지식 교육과 성윤리 교육 사이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에서 순결교육은 성윤리와 성가치관을 강조하는 성교육 모형이기 때문에 기존의 성교육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순결 가치관을 중시하는 통일교는 신자들에게 순결한 성과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가르쳐왔다. 성인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교회교육에서 순결한 성과 참사랑에 대한 교육은 가장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또한 신자들의 가정에서 순결 가치관은 부모의 모범적 삶과 가르침을 통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습득되고 있다.

그 결과로 통일교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삼가고 성관계란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것으로 이해한다. 전문대학교 신학순결대학의 신입생들에 대한 2012년도의 실태조사가 이를 보여준다. 이들의 경우 “이성교제 시 성관계에 대한 생각”에서 “절대로 안 됨”이 79.1%였고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이 18.6%였다. 반면 전문대학교 신입생 전체의 경우에는 “사랑한다면 가능”이 50.3%였고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가능”이 30.1%였으며 “절대로 안 됨”은 13.7%였다.³⁶⁾

한편, 통일교는 종단 내부적으로 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으로도 순결한 삶을 안내하고 있

다.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는 1997년 창립된 이래, 청소년들로 하여금 순결한 성과 사랑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강연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왔다.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재³⁷⁾와 영상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운동을 펼쳐 왔다. 학생, 교사, 학부모뿐만 아니라 유치원생, 사회단체, 직장인, 군인과 경찰에게도 교육하였다.³⁸⁾

순결교육은 통일교 종립 중고등학교에서도 강조된다. 선화예술학교, 선화예술고등학교, 선정중학교, 선정고등학교, 선정관광고등학교에서는 주로 보건교사가 주도하는 성교육뿐만 아니라 종교교사도 순결가치관을 중심한 성교육을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다.³⁹⁾ 교사들로 구성된 순결교육연구팀에서 청소년에 효과적인 성교육을 연구하고,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의 협조를 받아 ‘순결학교’로서 순결교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선문대학교는 신입생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인성교육과목으로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을 개설하고 있다. 이 수업에서 신입생들에게 순결가치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는 건학이념과 통일원리 및 통일사상 그리고 성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교재는 전체 5개 단원 총 15개 장 중 제3단원 제2장 “인간과 가정”에서 성윤리를 다룬다. 즉, 1절 “현대 가정과 성윤리”, 2절 “성윤리와 종교적 역할”, 3절 “가정윤리와 순결의 가치”에서 현대사회의 가정문제, 쾌락주의적 성문화, 매스미디어 문제, 성교육과 성가치관 혼란 및 순결의 가치 등을 다룬다.⁴⁰⁾

순결교육과 순결의 논리를 학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순결교육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선문대학교에 순결학과가 1999년에 설립되었다. 종교적 동기에서 시작된 순결학과이기 때문에 초기의 졸업생들은 주로 해외선교에 참여하여 순결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점차 국내의 성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진출하고 있다. 순결학과에서는 그동안 통일교적 관점의 순결을 학문적으로 논의해온 경우가 많았다.⁴¹⁾ 고학년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과제로서 『순결교육교재』, 『순결교육 프로젝트』, 『순결강의안』 등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제 현실의 성 문제에 더욱 다가서서 사회의 요청에 학술적으로 응답

36) 선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16(아산: 학생생활연구소, 2013), 24, 34, 117쪽.

37)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새순길라잡이』(서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2000);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소중한 나 고마우신 부모님』(서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2000);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청소년 순결교육, 그 대안을 찾아서』(서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연도미상).

38) <http://www.purelove.or.kr>

39) 선화예술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서울: 선화예술학교, 연도미상).

40) 진성배 외, 『현대문화와 통일사상』(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4), 152-186쪽.

41) 문상희, 『통일사상으로 본 순결학의 이념과 교육내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이재일, 『학문의 기초로서 통일사상과 순결학의 정체성』, 『통일사상연구논총』 12(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4); 문상희, 『인간 성기관의 존재목적으로 본 성윤리 기준-통일사상의 시각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9(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문상희,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순결한 성의 구현-통일사상의 시각에서-』, 『종교교육학연구』 30(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문상희, 『아름답고 고귀한 성』(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10).

하고 이에 합당한 후진을 양성하는 학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통일교의 근본 사상에서 성과 사랑은 중요한 주제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는 지금까지 성과 사랑에 대한 원론적 이해와 교리적 관점이 강조된 견해를 표명하는 것에 머물렀던 것도 사실이다. 통일교는 성과 사랑에 대한 이해를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양성평등, 성폭력, 성매매, 동성애, 성적 권리 등 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삶이란 욕망을 조절해가는 과정이다. 거짓된 욕망을 제거하고 참된 욕망을 보전해가는 삶이다. 욕망은 본래 확대될 수도 있고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주요 종교는 인간이 주체적으로 욕망을 적절히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왔던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필요악으로 여기고 그것을 조절하여 순기능을 하도록 안내해온 종교가 불교이다. 특히 불교는 나라는 생각(我相)과 내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나의 관점(가치관)에 대한 집착은 환상이므로, 이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친다.⁴²⁾

통일교는 잘못된 애욕, 즉 과분한 사랑의 욕망으로 인간 시조가 타락되었다고 본다.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사랑의 질서 및 소유의 질서가 파괴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은 이중성, 확장성, 주관성을 띤다고 본다. 즉, 욕망은 창조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타락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으며, 제어하지 않으면 확장되고, 대상의 존재목적을 실현하도록 도울 수도 있지만 대상을 소유하고 지배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심정을 계발하고 욕망을 제어하는 것을 권장한다.⁴³⁾

IV. 결 론

인간은 성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성과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 인간이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완전히 닮으라는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축복이자 과제의 핵심은 순결한 사랑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아담과 해와의 타락이란 곧 이러한 과제 해결에 실패한 것을 뜻한다. 거짓된 사랑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은 참사랑 곧 순결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복귀하여야 한다.

오늘의 인류는 가치관이 혼란된 와중에서 살아간다. 현대문화는 주류 가치관이 약화된 가운데 여러 가치관이 뒤섞여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가치관이 혼란된 사회에서는 자라나

42) 황옥자, 「불교적 관점에서 본 욕망·집착과 마음의 병에 관한 논의」, 『종교교육학연구』 33(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94, 99, 102-103쪽.

43) 이재영, 「통일교의 욕망 이해와 욕망 다스림」, 『종교교육학연구』 31(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49, 50-51, 53-56쪽.

는 세대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현대 한국의 사회와 문화는 무엇이 바람직한 삶의 양식인지 그리고 본받을 만한 이상적 인간상이 어떠한 것인지 청소년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대문명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왜곡된 성의식과 성적 일탈이 심각한 문제다. 이를 조장하는 것이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물신주의를 낳고 물신주의는 성과 사랑도 상품으로 여기게 하였다. 그리하여 한국사회는 성산업의 확장과 음란물이 범람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한국사회의 성상품화 현상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왜곡된 성의식을 형성시키고 있다. 아동기부터 상업적 대중문화에 노출되면 청소년기에 쉽게 성적 욕망에 지배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의 학교는 가치중립적 지식과 기술의 전수에 몰두할 뿐이고, 전인교육이나 인성교육은 구호에 그치고 있다. 가정에서는 교육적 기능이 축소되고 있으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다. 사회에서는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의 도덕성과 인격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생존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인간의 성은 생명과 사랑과 인격에 직결되는 사항이다. 그러므로 성교육은 인간교육이어야 하고, 건강한 생명과 사랑으로 안내하는 가치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회복되도록 각 방면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모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돈독하면 자녀의 성적 일탈을 막을 수 있다.

오늘의 청소년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건강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은 거짓된 사랑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사랑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참사랑이란 인간의 존재목적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이를 도외시해왔고, 중등학교의 성교육도 미흡한 상태에 있다. 통일교는 순결한 사랑의 교육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순결한 성의 가치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문헌

- 권수현, 『한국사회의 성문화와 가부장제: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자료집)』,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6.
- 김원희, 「대한성학회 발족 건의문」, <http://www.sexology.or.kr/about/history.php>
- 문상희, 『아름답고 고귀한 성』,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10.
- 문상희, 「인간 성기관의 존재목적으로 본 성윤리 기준—통일사상의 시각으로—」, 『종교교육학연구』 2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문상희, 「존재의 보편적 법칙에 따른 순결한 성의 구현—통일사상의 시각에서—」, 『종교교육학연구』 30,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문상희, 「통일사상으로 본 순결학의 이념과 교육내용을 위한 시론적 연구」, 『통일사상연구논총』 10,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2.
- 문상희, 「학교 성교육에서 순결가치관의 제언」, 『종교교육학연구』 3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선문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학생생활연구』 16, 아산: 학생생활연구소, 2013.
- 선화예술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서울: 선화예술학교, 연도미상.
- 〈‘성’은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할까〉, 《한겨레》, 2013년 5월 8일자 제13면.
-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원리강론』, 서울: 성화출판사, 1994.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참가정과 세계평화』, 서울: 성화사, 2000.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편, 『참가정과 종족공동체운동』, 서울: 세계평화통일가정 연합, 2002.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천성경』, 서울: 성화출판사, 2005.
- 신수진 · 최준식, 『현대 한국사회의 이중가치체계』, 서울: 집문당, 2002.
- 오택용, 「참아버님의 말씀으로 본 절대성의 의미」, 『말씀과 신학』 7, 아산: 선문대학교 신학부, 2001.
- 이재영, 「통일교의 욕망 이해와 욕망 다스림」, 『종교교육학연구』 31,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9.
- 이재일, 「학문의 기초로서 통일사상과 순결학의 정체성」, 『통일사상연구논총』 12, 천안: 선문대학교 통일사상연구원, 2004.
- 진성배 외, 『현대문화와 통일사상』, 아산: 선문대학교출판부, 2004.
- 최봉영, 『주체와 욕망』, 서울: 사계절출판사, 2000.
- 최봉영,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I, 서울: 느티나무, 1996.
- 최영애, 『우리사회 성문화와 성교육의 방향: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자료』,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 2000.
-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소중한 나 고마우신 부모님』, 서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2000.
-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새순길라잡이』, 서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2000.
-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청소년 순결교육, 그 대안을 찾아서』, 서울: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연도미상.
- 현택수, 『현대인의 사랑과 성』, 서울: 동문선, 2004.
- 황경식, 「성윤리 · 성철학 · 성교육」, 『철학과 현실』 22, 서울: 철학문화연구소, 1994.
- 황옥자, 「불교적 관점에서 본 욕망 · 집착과 마음의 병에 관한 논의」, 『종교교육학연구』 3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10.

- Beck, Ulrich und Beck-Gernsheim, Elizabeth,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강수영·권기돈·배은경 역,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 서울: 새물결, 1999.
- Bishop, Clifford, *Sex and Spirit*, 김선중·강영민 역, 『성과 영혼』, 서울: 창해, 2004.
- Fromm, Erich, *The Art of Loving*, 황문수 역, 『사랑의 기술』, 서울: 문예출판사, 1991.
- Giddens, Anthony,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on Modern Societies*, 황정미·배은경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서울: 새물결, 1996.
- Moon, Sang Huy, *Pure Love Studies: Origins, Preliminary Outcomes, and Future Directions*,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Bridgeport, 2004.
- <http://www.kasre.or.kr/index.php>
- <http://www.purelove.or.kr>

원고접수일: 2013년 6월 7일 심사일: 6월 19일 게재확정일: 7월 15일

연구자 소개 : 이재일

- ① 전공: 교육학·신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순결대학 순결가정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종교교육, 인성교육, 개화기의 한국교육
- ③ 주요논저: 〈다원종교사회에서 공립학교의 종교교육〉, 〈포스트모던 시대의 종교교육〉, 〈유길준의 종교관 변화과정과 교육개혁론〉
- ④ E-mail: leejaeil21@hanmail.net

연구자 소개 : 문선애

- ① 전공: 상담학 / 소속: 선문대학교 신학순결대학 순결가정문화학과
 - ② 관심영역: 상담학, 부부치료
 - ③ 주요논저: 〈Marriage Relationship Enhancement〉, 〈자문화중심주의와 다문화교육자의 리더십〉, 〈통일교 축복가정자녀의 배우자선택 유형변화와 그 의미〉
 - ④ E-mail: sunaemoon@gmail.com
-

Abstract

On the Unificationist Understanding of Sexuality and Love

Lee, Jaeil · Moon, Sunae

Sunmo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investigate the Unificationist understanding of sexuality and love. According to Unificationism, human beings created in God's image should have realized true love but were corrupted by doing false love. Therefore, they have to be restored as original human beings through practicing true love. True love is based on pure love. Values are confused as individual freedom is allowed and diverse cultures are mixed together in modern society. Sexuality is a representative part of moral confusion. Modern husband and wife want to make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However, a couple-dominated family structure alienates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resulting in a barrier to forming intimacy. For that reason, modern people tend to have more obsessions about sexuality and love. Modern people try to form intimacy and identity, and find the meanings of their lives through making various types of sexuality. Unificationism understands sexuality and love in light of with God's purpose of creation. And Unificationism insists that there must be pure love at the center of human beings' responsibility to realize the Three Great Blessings given by God. It also considers sex education as values education about true love.

Key words : sexuality, love, values, intimacy, pure love